

# “亞 협력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

### 文 대통령, 한·아세안과 한·메콩 정상회의 관심 당부

태국에서의 2박 3일 간 아세안 외교를 마치고 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두 회의의 성공과 아시아가 열게 될 미래를 위해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아시아의 협력은 서구가 이끌어온 과학 기술 문명 위에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

고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있는 만남을 가졌으며 모친상에 위로전을 보내주신 여러 정상들에 일일이 감사인사를 드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가 흥남

철수때 피난오신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가능성은 전통에 있다”며 “사람과 자연을 함께 존중하는 정신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고 상부상조의 나눔과 협력 정신은 포용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도 해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우리 소방대원들은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했다”며 “고인이 되어 돌아온 대원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대원들과 탑승하신 분들을 찾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응급구조 헬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돌아간다”며 “국민들과 함께 동료, 유가족들의 슬픔을 나누겠다”고 적었다. /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낙연 총리 “정부 출범 2년 반, 새 출발 각오로 국정 임하라”

이낙연 총리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국정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받고 가족들께 깊은 위로 드린다”며 “국방부·해양경찰청·소방청은 잠수대원, 헬기, 함정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가족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최대한 부응해드리기 바란다”며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소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수소 생산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은 더디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주민들께 안전 관련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9일이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된다”며 “국민의 꾸지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한

다는 각오로 국정 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과를 과장해 칭찬해도 안 되지만 억지로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다음을 논의해야 국가와 국민께 도움이 된다”며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 낮게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면서 “더 가까이 국민의 삶을 살펴 더 필요한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 여야 71명 ‘중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한국당 없어

여야 국회의원 71명이 5일 한반도 중전선언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중전선언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중

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

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중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게 아니라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5명, 김종대·여영국 정의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최경환 대안당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총 71명이 참여했다. /뉴스

## 이원택 전 전북 정부부지사, 국가균형위 전략기획위원 위촉... 지역 현안 혁신전략 기대

이원택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위촉됐다.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

획위원에 이원택 전 정부부지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0년 9월 초까지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지문하는 기구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7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새만금 정책 ▲농식품 특화산업 고도화 ▲혁신도

시 시즌2 등 대통령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실행하는 업무에 주력해 관련정책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도정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균형발전 전략에 녹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與 “벤처기업 육성은 혁신성장 동력... 금융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에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혁신이 주요 과제”라며 “국가경제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가고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

업”이라며 “그런데 생태계 조성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담보에 의존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98%”라며 “이런 형식으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뉴스

## “모든 도민들의 건강한 삶 위해”

### 전북도 보건의로 발전방안 연구회, 타 시도 보건의로기관 견학 나서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도 보건의로 발전방안 연구회(황의탁 대표의원, 무주군선거구)’ 소속 의원들이 5~6일 이틀간 태안군 보건의로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황의탁 의원은 “타 시도 보건의로기관의 진료·치료업무와 보건사업, 공공노인전문병원 운영상황 등을 직접 방문·청취하여 도 보건의로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태안군보건의로원은 매년 2만 명이 가까운 응급환자 진료 및 치료는 물론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상계원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보건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보건의로 발전방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5~6일 이틀간 태안군 보건의로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가정의학과와 한방 진료 중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11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선진지 견학과 정책세미나 등 왕성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능 강화와 보건의로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